학사 · 석박 통합 연계과정 도입, 6년 6개월 내 박사도 가능
기대와 우려 공존…연구 · 장학 등 지원제도 확충도 관건

김재희 기자 jaylove0413@khu.ac.kr

우리학교가 내년부터 학사 · 석박 통합 연계과정을 도입한다. 지난 9월 11일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사부터 박사까지 이어지는 통합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학위 취득에 따르는 시간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학계나 산업 현장에 더 일찍 진출할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다.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은 학부 시절부터 대학원 수업을 경험하고, 졸업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지 판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학위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지, 학생이 충분히 신중하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우리신문은 새로 도입되는 학사 · 석박 통합 연계과정에 대한 현직 대학원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 연계과정별 수업연한 단축 기간

구분	학·석사 연계과정	학사·석박 통합 연계 과정
조기졸업형	학부 0.5년 + 대학원 0.5년 단축 **총 1년 단축**	학부 0.5년 + 대학원 1년 단축 **총 1년 단축**
정규졸업형	대학원 0.5년 단축	대학원 1년 단축

※ 학과별 선발 예정이며, 연계 유형 및 진학 과정에 따라 단축 기간이 다름.
※핵심인재양성 분야 및 우리학교의 전략적 성장분야에 적용되는 Fast Track은 대학원 과정에서 1개 학기를 추가로 단축할 수있음.

대학원 진학 문턱 낮추고 연구교육 연속성 높인다

우리학교 대학원은 2027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기존의 예약입학전형과 학·석사 연계전형을 폐지하고 학·석사 연계과정과 학사·석박 통합 연계과정을 새롭게 운영한다.

학사·석박 통합 연계과정은 학부 졸업 후 석사와 박사 과정을 각각 거치는 대신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진학하는 제도다. 별도의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바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한다. 기존 석·박사 통합과정은 수업연한이 4년이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학사·석박 통합 연계과정을 선택하면 이를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해당 연계과정은 대학원 전 학과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학사·석박 통합 연계과정의 정규졸업형은 학부 4년과 대학원 3년을 합쳐 총 7년, 조기졸업형은 학부 3년 6개월과 대학원 3년을 합쳐 총 6년 6개월이 소요된다.

학·석사 연계과정도 기존 제도를 개편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학부 조기졸업과 석사과정 진학을 연계했지만, 개편 후에는 정규졸업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졸업형은 학부 4년과 석사과정 1년 6개월을 합쳐 총 5년 6개월, 조기졸업형은 학부 3년 6개월과 석사과정 1년 6개월을 합쳐 총 5년이 걸린다.

신청 기회와 지원 자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석사 연계전형은 3학년 1학기, 예약입학전형은 4학년 1학기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두 연계과정 모두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 사이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전공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본전공이나 다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원 학과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부 전공과 무관한 학과에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평점 평균은 정규졸업형 3.0 이상, 조기졸업형 3.2 이상이다.

연계과정 승인 학생에게는 학부 수강 최대 학점보다 3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기회도 주어진다. 학부 재학 중 대학원 수업을 미리 경험하고 진학 여부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 한 학기 전 별도의 입학 전형을 거쳐야 한다. 학사지원팀 측은 "연계과정 승인 학생의 입학 전형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학사·석박 통합 연계과정의 도입으로 대학원 진학의 문턱이 낮아질 것을 기대했다. 박규창(반도체물리학) 교수는 "학생들이 학위 취득에 걸리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주저하는 게 아쉬웠다"며 통합 연계과정 도입으로 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이 박사과정까지 진학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평가했다.

학부와 대학원 교육을 연계해 연구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민철(화학) 교수는 "연구에 관심과 역량이 있는 학생이 학부 후반부터 대학원 수준의 연구를 경험하면 연구훈련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단순히 졸업 시점을 앞당기는 것보다 교육과 연구를 연속적으로 설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컴퓨터공학) 교수 역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연구 문제에 적용하고, 연구 과정에서 부족한 지식을 다시 심화 학습으로 보완하는 경험을 일찍부터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위 질 저하와 섣부른 진로 결정 우려

하지만 대학원 수업연한 단축이 충분한 연구 역량을 쌓는 데 제약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연구 성과를 내기까지는 일정한 수련 기간이 필요하지만, 정해진 졸업 연한에 맞추다 보면 연구의 깊이보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성민(신소재공학) 교수는 "연구 역량을 갖추려면 일정한 수련 기간과 그에 상응하는 실험 결과가 필요하다"며 "실험이 항상 계획한 기간 안에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기에, 조기졸업에 집중하면 충분한 연구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 역시 "조기 학위 취득이나 단기간의 논문 실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학생이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기보다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주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 기간 단축이 부실한 학위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교수는 대학원 중간 과정에 한두 차례 연구 역량을 평가하고,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학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기존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을 지도할 때도 주저자 논문 실적을 조기졸업의 조건으로 두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원래 수학 기간을 거치도록 했다"며 "통합 연계과정 또한 논문이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최소 졸업 요건을 명문화해, 조기졸업 여부를 연구실이나 학과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맡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만으로 진학 늘까 연구 · 장학 여건 뒷받침돼야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도 뒷받침돼야 한다. 윤 교수는 "학부 연구생을 하겠다고 와도 앉을 자리가 없는 연구실이 수두룩하다"며 "새로운 진학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 지원 확대도 과제로 꼽힌다. 박 교수는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주저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등록금 부담"이라며 "전액 장학 등의 지원이 확실히 보장돼야 학생이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을 덜고 진학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학생 대상 재정 지원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 김 교수는 "등록금과 생활비성 지원의 범위, 지원 기간, 유지 조건 등을 학생이 미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구비 상황이 변하더라도 교육과 연구에 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학 차원의 보완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교수의 연구비로 지원을 받는 것과 장학금으로 지원을 받는 것에서 학생이 느낄 안정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연계과정에 관한 학과별 세부 사항은 11월 중 단과대별 신청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학기 선발 일정은 오는 12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대학주보
유튜브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구독하기!
유튜브에 올라오는 학내외 뉴스와 다양한 컨텐츠 확인하기!
@khunews_jubo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대학주보, 제보는 khunews@khu.ac.kr